

‘묵서지편’에서 찾은 고려시대 佛國寺

‘묵서지편’ 석가탑에서 어떻게?

‘묵서지편’ 최초 수습한 정영호 관장 증언



6월 20일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학술세미나서 전문가들은 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좌로부터 신용철(동주사 성보박물관), 천주현 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팀), 김성수 교수(경주대), 남동신 교수(덕성여대), 정재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안승준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 노명호 교수(서울대), 이승재 교수(서울대), 최연식 교수(목포대),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 주경미 교수(부경대).



1966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물 및 묵서지편을 직접 수습했던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

말바닥에 파란 목지가 있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좌장격인 김상기 교수가 "측천무후급자다.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지시했다.

석가탑 해체를 두고 김재원 관장(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마음대로 해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으나, 문화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유물 모두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이관했다.

그 후 '묵서지편'은 1996년 한겨레신문에 손보기 박사가 묵서지편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다. 1997년 수장고에 보관된 보라색 라보자기에 싸여진 '묵서지편' 해체가 시작됐다.

석가탑에서 900여년을 침묵한 '묵서지편'은 어떻게 수습됐을까? 1966년 석가탑에서 '묵서지편'을 최초 수습한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이 말하는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1966년 9월 '경주 불국사 영망진창'이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스승 황수영 박사 등과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

석가탑은 1·2·3층 옥개석 모두가 빠져있던 상태였다. 석가탑을 두루 둘러싼 돌기둥 등은 지진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불국사 스님들도 "지진으로 경사 위에 놓인 <경전>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증언했으나 정영호는 달랐다. 석가탑 옆 다보탑이 멸정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석가탑 옥개석이 빠져있던 원인이 밝혀졌다. 불국사 수위가 도굴을 위해 건축용 작기로 탑을 뒤흔던 것.

바로 해체작업이 시작됐고, 석가탑 2층에서 사리장엄물이 수습됐다. 주지실에서 주지 경암 스님, 황수영,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묵서지편'이 발표됐다.

'묵서지편' 보존처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천주현 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보존처리팀)은 "석가탑 유물 보존처리 지시 후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차 보존처리를 마쳤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묵서지편' 보존처리를 마칠 예정"이라 말했다.

당시 석굴암 해체는 정식발굴이 아닌 긴급 수습으로 공식 사진자료는 없다. 정 관장이 촬영한 것이 전부다. 정영호 관장은 기록보존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촬영필름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공했다. 이 사진들은 불국사 성보박물관에도 제공돼 당시 '묵서지편' 수습의 생생한 현장을 전할 예정이다.

정영호 관장은 "김상기 교수 지시를 따라 비단봉지를 그대로 둔 것이 다행이었다. 그때 선불리 해체했다면 오늘날 '묵서지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최연식 교수, 조계종 학술세미나서 발표

석가탑 '묵서지편'은 불교미술사, 이두 등 국어학 뿐 아니라 불교의례와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문서 해독을 마친 '묵서지편' 어떻게 연구될 수 있을까? '묵서지편'을 갖고 고려시대 불국사 상황을 재조명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6월 20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가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는 석가탑 '묵서지편' 연구를 집대성한 자리였다. 최연식 교수(목포대·사진)의 '석가탑 발견 묵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은 '묵서지편' 해독에 따른 불국사적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는 불국사에 산신을 모시는 전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덕전체는 인도 토착신 락슈미가 불교에 포섭돼 불교 수호신으로 변화된 공덕천녀를 모시고 복덕을 비는 법회다. <금광명경> '공덕천품'에 의거한 공덕천을 모시는 법회는 한국불교에서 주로 고려 무인집권기 이후에 보였고, 궁궐에서 공덕천도량(功德天道場) 형태로 개최됐다. 최 교수는 "공덕천재도 산신설경과 같이 정기적으로 거행됐을 것이다. 불국사에 공덕천을 모시는 특정 전각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최연식 교수는 " '묵서지편'에 기록된 사리를 모시는 절차 및 의식이 755년 화엄사에서 <화엄경> 사경시 사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의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서탑기>에 불국사 승려와 신도 등의 7·7제(齋)와 기일제 기록이 있음도 언급했다.

고려시대 불국사 승려는 몇 명이 있었을까? 최 교수는 "무구정광탑기"에 기록된 승려는 모두 90명 이상이며, 그중 불국사 소속 승려는

78명"이라 발표했다. 그는 "1024년과 1038년 당시 불국사에 머물며 석탑 중수 작업에 동참한 승려는 모두 300여명으로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승려 명단 중 최대분량"이라고 주장했다. 최연식 교수는 "승려의 소임에 따라 '묵서지편'에 기록된 승려 중 약 20%가 승직을 가진 고급승려였고, 승직이 없는 일반 승려 중 일부는 화상(和尚)의 존칭으로 불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지선 교수(충남대)의 '묵서지편의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 노명호 교수(서울대)의 '석가탑 묵서지편의 문서의 연결복원과 판독', 이승재 교수(서울대)의 '묵서지편의 어학사상', 최연식 교수(목포대)의 '석가탑 발견 묵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주경미 교수(부경대)의 '묵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물 관련 용어',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묵서지편'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최연식 교수는 " '묵서지편' 중 <무구정광탑기>의 기록에 따라 11세기 전반 불국사가 법상종 사찰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11세기 후반 이후 법상종 사찰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기존 견해는 수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불국사가 고려시대까지 화엄종 사찰이었다거나 11세기 후반 이후 법상종 사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최 교수는 "일반적인 선종 계열 사찰의 삼강전(三綱殿)과 달리 불국사 삼강

전은 도감, 부도감, 부감, 사 등으로 독특한 구성을 갖춰 교종 사찰의 구체적 사례"라 설명했다. 독특한 삼강전 구성에 대해 최연식 교수는 "삼강전은 선종 이전부터 있던 기관이다. 교종과 선종사찰의 구성이 다를 이유는 없지만 선종과 교종 사찰이 분립해 발전하면서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는 "삼강전은 사찰 최고운영기구가 아닌 실무 운영기관이었다"면서, '묵서지편'에 기록된 대관전은 삼강전에서 분

화된 기구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묵서지편'에 기록된 특별 법상과 사리 봉안 의식 자료를 당시 신앙과 의례 모습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로 주목했다. <무구정광탑기>에 석탑 중수작업 진행 중 병행한 산신설경(山神設經)과 공덕천재(功德天齋) 기록은 당시 불교와 토착신앙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본 최연식 교수는 "무구정광탑기" 내용에 따르면 산신설경은 정기적으로 거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봉 스님 학술적 조명 시작됐다

인도철학회 월례발표회서 정도 스님 발표

근대 선지식으로 가장 많은 선목을 남긴 "공부는 발심에 있다" "바보가 돼야 참사람 된다" 는 법문과 여든이 넘어서도 철야로 정진해 수행납자의 귀감이었던 경봉

스님(1892~1982)에 대한 논문이 학술적으로는 처음 발표돼 눈길을 끈다.

6월 21일 '종교와 계율'을 주제로 동국대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월례발표회서 정도 스님(동국대 강사)은 '경봉 선사와 선사상'을 발표했다.

정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생애를 출생·출가 후 만봉 스님을 만나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공을 찾아 정진했던 선지향기

(1809~1929)와 경전과 실천의 균형을 지향했던 증생교화 시기였던 전법도생기(1930~1953), 마음자리의 선관을 뚜렷히 확립한 회향기(1954~1982)로 나눴다.

스님은 "구한말 성해 스님에게 시작된 영축총림 선택이 구하 스님과 경봉 스님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하고, "경봉 스님 선사상의 특징은 ▲(주인공이 돼) 멋있게 살라 ▲평상심사도 ▲선교겸수 ▲유심

정도 등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례발표회에는 서명원 교수(서강대)가 '불교의 승가계율과 기록도 수도규칙의 정신 비교연구'를, 백도수 연구원(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이 '구전전승에 의한 원시불교 교단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최철 스님(동국대 강사)이 '<선문강요집>에 나타난 임제삼구 고찰'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英 곰브리치 교수 東大 찾는다

'붓다의 생애와 사상' 주제로 7월 3일부터

세계적 석학 곰브리치(R. Gombrich) 교수(옥스퍼드대학 동양학부 교수)가 한국 불교학 연구자에게 강의하기 위해 동국대를 찾는다.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마련한 써머스쿨서 곰브리치 교수는 '붓다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강의한다. 곰브리치 교

수 등 해외 석학들을 초빙해 열리는 특강은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대한 7개 강좌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게 된다.

7월 17일부터 29일까지는 황순일 교수(동국대), 미산 스님 등 해외유학파 불교전문가들이 '한국 문화와 종교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02)2260-3463 **조동섭 기자**

“열린 법당 춤추는 동심”

제 4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분회에서는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도자분들께 도움을 주고, 활짝 열린 부처님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불교학교를 만들자. '열린법당 춤추는 동심'이라는 주제로 제 4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일 시 : 불기 2552(2008)년 7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 6일 일요일 오후 3시
- 2.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5분

3. 교육내용

• 강의 1 마음을 열어오(Open mind, Ice break)	한재경 - 본회 교육연구위원	• 강의 5 분인토의와 발표	장현재 - 본회 교육원장
• 강의 2 과학속의 부처님 이야기	박광서 - 서강대학교 교수	• 강의 6 환영의 밤 - 레크리에이션	교육분과
• 강의 3 찬불가와 노래 지도법	민선희 - 봉은사 합창단 지휘자	• 강의 7 클레이 아트	이수진 - 국제공연예술협회 김포지회장
• 강의 4 교리를 쉽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법	재환스님 - 봉은사 연꽃유치원 원장	• 강의 8 선요가, 찬불가운동, 레크리에이션	교육분과

- 제4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강습회를 위해 조별활동(1조 1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 위 일정 외 체험부스(풍선, 종이접기, 페이스페인팅) 운영합니다. 활동을 통하여 1교사 1특기를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4. 참가비

구분	일반	전문지도자/교사대학	도서벽지 및 균종	비고
금액	50,000원	45,000원	30,000원	접수된 참가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 5.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개인용 침구(침낭 또는 얇은 이불)
• 사찰에서 강습회를 개최하다보니 잠자리와 세면실이 불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 공정한 준비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6. 접수 : 선착순 200명 전화 및 인터넷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 - www.burec.org
- 5.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001-04-163577 / 농협 053-01-267940 / 신한은행 324-01-107672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7. 문의 : 02)738-7860(대), FAX 02)738-7863 (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 목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 (기본 :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범고, 태평소, 대금, 단소, (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